

# 부동산 투기 공직자 엄벌 '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 부동산 정보 취급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민주, 월말까지 이해충돌 방지법·부동산거래법 처리 목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

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에 대해서도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대

부분 내용이 합의돼 상임위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아직 정부위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이 거부할 경우 단독 처리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여당

이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LH 문제를 단호히 처리하면서 성과를 내면 '잘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성 있고 최선을 다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 인정만 받아도 국민의 마음이 좀 돌아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긴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왼쪽)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전남도의회, 군공항 이전 해법찾기

### 다음달 1일 공동 성명

답보 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나선다.  
24일 시·도 의회에 따르면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달 1일 공동 성명을 내놓기로 뜻을 모았다.  
내달 1일 광주시의회에서 발표하기로 한 군공항 이전 관련 성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의회는 우선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합의'를 파기할 데 대한 광주시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018년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만나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조건 없이 이전, 통합하겠다'고 합의·공표했으나, 광주시는 지난 12월 사실상 합의를 했다.  
민항 이전 문제를 시민 여론조사에 부처 이전 반

대 의견이 높게 나오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사실상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2018년 당시 합의에 담긴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국방부·양 시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들어, 광주시는 "합의 파기가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전남도의 반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시·도 의회는 또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4자 협의체 대신, 국무총리가 포함된 범정부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도 성명을 통해 강조할 방침이다.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닌, 명백한 국책 사업이다. 이전 지자체 인센티브 등 범정부 차원의 이전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고,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데 시·도 의회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 빨간 넥타이 맨 안철수

### 국민의힘 의총 참석...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레이스에서 탈락한 후 야권 승리를 돕겠다고 약속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 당 색인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안 대표를 기립 박수로 환영했다. 그가 평소 매지 않던 넥타이였다.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의원들과 안 대표의 표정이 모두 밝았다.  
앞서 단일화 결과에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제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를 지원해주신 분들이야말로 정권 교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법야권 대통합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권 단일후보에 오른 후 후보는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저와 안 후보의 정치적 책무"라고 호응했다.  
안 대표와 후 후보는 포용을 하며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이후 정권교체를 위해 '원팀'으로 함께하겠다는 뜻을 제스처로 보여주기도 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소병철 "전남은 농사만 짓나" 한전공대법 통과 이끌어내

"전남은 농사 짓고 물고기만 잡아라는 말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의 법사위에서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법사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보냈다. 이날 한전공대법은 표결 처리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전남에는 이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과 같이 정원 6~700명이 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있다. 반면, 전남에 설치될 한국에너지공대는 정원은 겨우 100여 명



에 불과한데 이것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하면 이것을 전남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라고 강조했다. 또 "해방 직후에는 전남과 경북의 인구 격차가 16만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100만 이상까지 벌어지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프라의 격차 때문이다"며 "전남이라고 해서 농업하고 어업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전공대법은 전남의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매우 절실한 인재육성기관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반드시 이변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재갑, 여야 의원 27명과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발족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4일 "여·야국회의원 27명과 함께 '국회 세계인 장보고포럼'을 발족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세계인 장보고포럼은 정해진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정신, 글로벌리더십과 경영모델을 재조명하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위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적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윤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아 국가적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민주당 강훈식·김경만·김민석·박정·박영순·서



삼석·서영호·송영길·이계호·이용민·이원택·허중식(가나다 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김성원·박진·서범수·안병길·엄태영·윤주경·이달곤·이영·이체익·정진석·조수진·조해진(가나다 순) 국회의원 등 27명이 참여했다.  
윤재갑 의원은 "초당적으로 모인 27명의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현안의 해법을 찾아 국가 발전전략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열린민주당 김진애 사퇴 의결... 김의겸 의원직 승계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건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10달을 일하고 떠나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 시민 김진애로 돌아가 역할을 찾겠다"며 "21대 국회가 현실적이고 대중적이고 굽직한 행보로 국민에게 변화의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관위 통보 등 김 의원의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연합뉴스

##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총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5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 “싼” “땅”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확정
- ▶ 매매 - 21억원,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 “금” “매”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20층 중 8층, 사무실 전용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코너, 전망 좋음, 주차 편리
- ▶ 매매 4억1천원 → 7,500만원
- ▶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6837-4700